

완도군, 귀농·귀어·귀촌 정착 돕는다

도시민 유치 목표 13개 사업 편성 관내 어울림 마을 3개소 운영 등 찾아가는 설명회 홍보 활동 나서 “인구 증대 지역 활력 기여 노력”

전라남도 완도군은 귀농, 귀어,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도시민 유치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2일 완도군에 따르면 올해는 1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귀농인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는 △귀농인 정착 및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5세대, 세대 당 500만원) △어울림 마을 3개

소 운영 △동네 작가 운영 △귀농, 귀어, 귀촌 모임체 육성 등이 있다.

귀어인을 위해서는 △청년 어촌 정착 지원(20명, 연차별 차등 지원) △귀어가 정착 지원(10가구, 세대 당 5백만원)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전남에서 살아보기’(2개소)는 귀농·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3개월간 완도에서 생활할 기회를 제공한다.

‘전남형 만원 세컨 하우스’(2개소)는 활용 가능한 빈집을 정비하여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거주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친다.

귀농산어촌 박람회 참가(4회), 찾아가는 귀농어귀촌 설명회(5회), 귀농귀어 교육(2회) 등을 통해 예비 귀농, 귀어, 귀촌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귀농, 귀어,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도시민을 유입하면 인구 증대와 지역 활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효율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하계작물 정기 변경 신고제 6월까지 벼·사과·배·포도 등 강진농관원

전라남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진 사무소는 농업경영체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6월까지 벼·사과·배·포도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본격적으로 운영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보조 사업 지원혜택을 받는 대신 농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는 정확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토대로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농정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과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농업인이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지원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에 강진농관원은 올해부터 정기 변경신고제를 도입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마늘·양파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4월부터 6월에는 하계작물 변경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변경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강진농관원은 이번 시범운영으로 농업인의 변경등록 참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농업인단체 등과 협력 확대, 주산지 품목 위주로 홍보 집중, 변경등록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안내 등 중점 추진 사항을 마련해 정기 변경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련 법령상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접지불금의 10% 감액 대상에 해당하나 올해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직불금 등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등록이 필수이라는 게 강진농관원의 설명이다.

등록정보의 변경신고는 농관원 사무소에 전화·방문하거나 콜센터(1644-8778), 온라인서비스(agrix.go.kr)를 통해 가능하다.

강진=김윤복 기자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해남군, 내달 2일까지 신청

전라남도 해남군은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사업’ 대상자를 오는 5월2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일하는 청년(근로자 또는 사업자)으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287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전라남도나 해남군에서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으로, 3년 만기 시 720만원과 약정된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해남군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 미래공동체과(061-530-5062)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기점·소악도 공유 자전거 운영 신안군, 어플 활용 대여 반납

전라남도 신안군은 기점·소악도에서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자전거는 전기자전거로 장거리도 보가 불편한 분들을 위해 도입됐다. 공유자전거 이용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하다.

무인 방식으로 운영되며 방문객은 물론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다.

자전거는 찾기 쉬운 순례자의 섬 내 주요 4개 지점에 준비돼 있으며 이용을 위해서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대여는 앱 또는 등록된 카드로 가능하다.

신안군 관계자는 “공유자전거 정식 운영을 통해 순례자의 섬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교통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양식 어장 정화 사업 추진 완도군, 5개 어촌계 대상

전라남도 완도군이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을 위해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완도군에 따르면 양식 어장 정화는 양식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 침적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총 5억원을 투입해 완도를 장좌리 등 5개 어촌계 양식 어장(763ha)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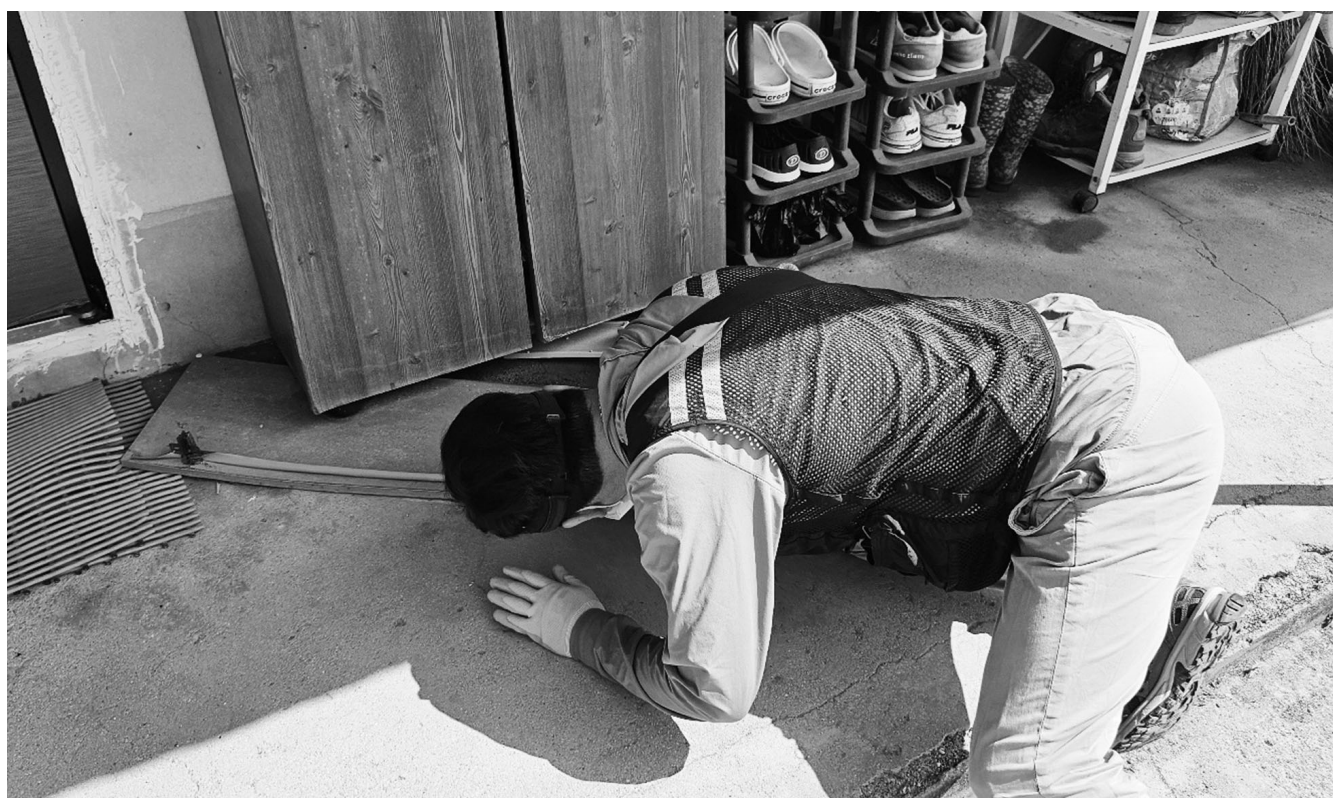
해당 사업은 매년 어촌계 단위로 신청을 받아 어촌계 면허 유효기간, 양식 어장의 오염 심화 정도, 어장 재배치 여부 등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주변 어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완도군에서는 지난 5년간(2020~2024년) 총 30억원을 투입, 26개 어촌계 2767ha의 양식 어장을 대상으로 정화 사업을 추진해 총 868톤의 해양 폐기물을 수거·처리했다.

양식 어장 정화 사업은 바다의 자정 능력 회복으로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산물 품질이 향상돼 어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군은 △어장 정화선 이용 찾아가는 해양 쓰레기 수거 △바다 지킴이 365기동대 운영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사업 등 총 46억원을 투입해 해양 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해양 생태계 회복과 수산 증강을 위해 총 23억원을 투입해 탄소 중립을 위한 바다 숲 조성, 해삼 서식 기반 조성 및 씨 뿌림, 건강한 수산 종자 방류 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완도=정태영 기자



강진군 작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이 취약계층 가구를 찾아 해충의 종류를 확인한 후 약제를 선별해 방역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작천면 지사협, 하절기 대비 해충 방역 활동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취약계층 15가정을 대상으로 따뜻한 홈클리닝 방역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해충·세균 피해에 대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 장애인, 중장년 1인 가구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획됐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실내외 해충의 종류(바퀴벌레, 개미, 진드기 등)와 분포를 확인한 후 약제를 선별해 소독하는 등 맞춤형 방역을 실시해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증대시켰다.

협의체 위원들은 방역 대상 가정에 함께 방문해 소독 현장을 지켜보고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벌레기피제 등을 전달하고 방역효과를 지속시키는 방안을 함께

안내,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들의 복지 욕구에 대해 조사했다.

김수진 작천면장은 “방역지원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병해충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취약계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건강을 지켜주는 작천면의 특화사업으로, 마을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신안군, 제3회 세계 김밥 페스타 개최

26일부터 자은도파크서

전라남도 신안군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자은도 뮤지엄파크에서 ‘제3회 신안세계김밥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자치단체 처음으로 개최한 김밥 페스타는 올해 3회째를 맞아 더욱 풍성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축제장에서는 군이 개발한 신안 김밥 9종을 판매한다. 사계절 꽃피는 정원을 형상화한 신안정원김밥, 리코타치즈를 넣은 리치김밥, 새우와 김을 섞어 만든 전을 김밥 안에 넣고 감싼 김전김밥이 대표적이다. 김밥 가격은 행사기간 동안 2000원부터 최고 5000원까지 착한가격에 판매한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신안정원 김밥 콘테스트와 바티칸 교황 수석 셰프인 부로노칭골라니의 쿠징쇼와 신안김밥 개발자에게 배워보는 신안김밥 쿠징쇼 등 다양한 볼거리도 진행한다.

신안정원김밥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김밥 만들기과 슬로시티 홍보 체험존, 어린이 놀이터를 운영하며 페스타에 참여한 모든 관광객에게 신안쌀, 땅콩강정 등 1500여 개 경품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자은도 해변에서 개최되는 김밥페스타는 지난해 보다 확장된 공간에서 진행되며 주변에 조개박물관, 수석전시관, 휴양림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휴일 주말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행사다.



행사장 일원에서는 피아노섬 축제, 보라해 댄스 페스티벌이 동시에 개최돼 3가지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은 김밥의 주재료를 모두 생산하는 김밥의 일번지다”며 “신안세계김밥페스타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미식축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홍일갑 기자